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배포일자	2022년 11월 16일(수) 총 6매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담 당 자	• 교통정책팀장 유숙임 ☎440-3851 • 담당자 윤 일 ☎440-3853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14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지원 공동건의문 제출

- 무임손실로 도시철도 구조적 경영난, 국회·정부에 책임있는 자세 요청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비지원 문제, 협의체 국회·정부 결단 강력 촉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요청에 다시 나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15일 '공동건의문'을 동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붙임 1: 공동건의문)

*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음.
  - 광역(7)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 기초(6) :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40년간의 누적 손실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임손실로 인한 전국의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은 약 24조원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인천교통공사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783억원, 붙임 2: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손실 현황)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된 도시철도 운임은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 전국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통계청)
  : ('21년) 16.6% → ('25년) 20.6% → ('50년) 40.1% → ('70년) 46.4%

또한, 전국 도시철도는 오래된 연한으로 안전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노후 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하철 내 밀집 현상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동통로의 확장 및 신설, 구조적 동선 분리 등이 필요하지만, 무임손실로 인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 여력도 고갈된 상태다.

지체되는 국비 지원은 결국 도시철도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인천시는 협의회와 함께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미래 세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더 큰 어려움이 되기 전에, 2천 5백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공공 교통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과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붙임 1 공동건의문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위한

전국 13개 광역 · 기초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

전국민의 생활과 경제를 잇는 필수 대중교통 수단인 도시철도가 전례 없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는 일일 이용객만 수도권 800만, 전국 2천 500만명이 이용하는 국민의 발이지만, 누적되는 무임수송 재정적자로 인해 미래를 바라봐야할 도시철도 서비스가 멈춰설 위기해 처해있습니다.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정부 주도 정책으로서 도입됐습니다. 도입 초기와는 다르게 노인인구 급증, 초고령사회 진입 등 시대 변화를 직면하면서 법정 무임승차의 수요 증가는 현재진행형인 문제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정책 시행 후 39년, 무려 약 4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정부는 어떠한 지원과 대안 마련의 노력 없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모든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시행하는 국가 주도 공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미루기식 정책결정의 답습으로 제도의 본 취지와는 다르게 지속적인 철도 경영을 위협하는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의 도시철도 경영 상황은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비중은 매년 약 41%, 누적 적자비용은 24조에 달할 정도이며,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약 3년간의 승객감소, 원자재값 상승 및 운영비용 증가,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경제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물가 악순환으로 인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억누를 수 밖에 없는 초유의 경영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40년간 누적된 적자 구조로 인해 요금 인상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제한적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노후시설 재투자 시점이 이미 지나 안전한 운행 환경 확보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정부의 지원 없이는 구조적인 재정난을 해소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경영의 지속성과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지원 근거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둘째,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지원하는 정책취지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간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도시철도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전국 도시철도의 존립이 우려되는 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무임승차 재정 지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미래 세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더 큰 어려움이 되기 전에, 2천 5백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공공 교통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2년 11월 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인)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인)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인)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인)

경기도지사 김동연 (인)

용 인 시 장 이상일 (인)

부 천 시 장 조용익 (인)

남양주시장 주광덕 (인)

김 포 시 장 김병수 (인)

의정부시장 김동근 (인)

하 남 시 장 이현재 (인)

붙임 2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손실 관련 현황**

☐ 당기순손실 및 무임손실

(단위: 억 원)

구 분		연평균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당기순손실	13,427	10,330	10,677	10,899	18,421	16,808
	무임손실	5,526	5,853	5,997	6,350	4,577	4,851
서울	당기순손실(a)	7,559	5,253	5,389	5,865	11,137	10,151
	무임손실(b)	3,236	3,506	3,540	3,709	2,643	2,784
	무임손실 비율(b/a)	49%	67%	66%	63%	24%	27%
부산	당기순손실(a)	1,852	1,492	1,660	1,525	2,634	1,948
	무임손실(b)	1,217	1,248	1,306	1,396	1,045	1,090
	무임손실 비율(b/a)	70%	84%	79%	92%	40%	56%
대구	당기순손실(a)	1,693	1,593	1,480	1,396	2,062	1,936
	무임손실(b)	521	547	569	614	416	459
	무임손실 비율(b/a)	32%	34%	38%	44%	20%	24%
인천	당기순손실(a)	1,401	1,170	1,216	1,247	1,591	1,783
	무임손실(b)	254	250	271	297	213	240
	무임손실 비율(b/a)	19%	21%	22%	24%	13%	13%
광주	당기순손실(a)	371	354	405	357	375	366
	무임손실(b)	79	87	89	92	63	64
	무임손실 비율(b/a)	22%	25%	22%	26%	17%	18%
대전	당기순손실(a)	399	377	400	366	436	416
	무임손실(b)	102	116	117	122	76	80
	무임손실 비율(b/a)	26%	31%	29%	33%	17%	19%
경기 (용인, 의정부, 김포)	당기순손실(a)	335	247	281	381	372	393
	무임손실(b)	94	77	83	103	97	112
	무임손실 비율(b/a)	28%	31%	30%	27%	26%	28%

※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송량 감소로 운수수입 및 무임손실액 감소